

광주시, AI스타트업 창업·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시·AI사업단, 20일까지 빅데이터·AI 분야 참여기업 모집 기업당 최고 6억, 100억 규모 지원...미래 유니콘 기업 육성

광주시가 '미래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해 혁신적인 빅데이터·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원 규모의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10일 광주시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에 따르면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빅데이터·AI 분야 참여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빅데이터·AI 분야를 주관한다.
AI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창업 10년 이내 빅데이터·AI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AI사업단은 총 18개 기업을 선발해 기업별로 최대 3년간 6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보유 기술 고도화와 데이터 품질 검증 서비스 지원,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시장 확대를 위한 실증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AI 기반 시험·분석 및 데이터 품질 검증 서

비스를 지원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증과 규제 대응을 위한 인증·인허가 컨설팅 등도 적극 지원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힘을 보탠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광주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AI 가속기를 활용한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및 데이터 분석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중견기업과 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및 기술적용 사례 확보를 위한 실증 지원 프로그램 지원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기업은 오는 20일까지 K-Startup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AI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광주를 세계가 주목하는 AI 실증밸리로 조성하고,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미국 핵 잠수함 '알렉산드리아 함' 부산 입항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 함'(SSN-757-6900t급)이 1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1년에 취역, 국내에 처음 입항하는 이 잠수함은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40여 명 규모이다. /연합뉴스

광주 AI 사관학교 6기 교육생 330명 모집

4월까지...10개월 이론·실무 교육

광주시는 10일 "인공지능(AI) 사관학교 제6기 교육생 330명을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AI사관학교는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기관이다.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에서 실무역량을 쌓고,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입교 신청부터 수료, 취·창업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로, AI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 교육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까지 익힐 수 있다.
AI사관학교는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탄탄한 AI 교육과정을 통해 2024년 5기까지 총 1221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1~4기 졸업생 중 70.9%가 취·창업에 성공했고, 5기(2024년)에서는 52명의 학생이 졸업 전

조기 취업을 하는 등 우수한 취·창업 성과를 보였다. 6기 교육생은 AI 사관학교 누리집(https://gaischool.or.kr)을 통해 모집한다.
학력·전공·성적·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AI에 관심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전국 청년 미취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생은 1차 서류심사와 온라인 기본과정, 역량 테스트, 심층 면접 등의 선발 단계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발된다.
6기 교육은 총 10개월간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프로젝트 과정으로 1300시간 운영된다.
교육생에게는 노트북 등 교육 기자재가 제공되며, 교육비 전액·식비·교통비·기숙비·교재 등 교육에 드는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최태조 광주 AI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 사관학교 6기는 지난 5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계별·수준별 교육 편성, 후속지원 프로그램까지 탄탄하게 준비돼 있다"며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전국 청년들이 광주에서 미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불법주정차·교통 위반 이제 시민이 잡는다

안전신문고 이용·만족도 전국 2위 인구 10만명당 신고 3만6688건

광주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2024년 안전신문고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는 대전시에 이어 두 번째(인구 규모 10만명당)로 신고 건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온라인 민원창구인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광주지역 신고 건수는 총 52만690건으로 전년(34만6945건) 대비 50%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광주 3만6688건으로, 대전 4만5024건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신고 분야별로는 불법주정차(50.2%), 자동차·교통 위반(30.3%), 안전(12.2%), 생활불편신고(7.3%) 순이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총 26만1425건(10만명당 1만8420건)이 접수됐으며, 항목별로 횡단보도(26%), 교차로모퉁이(14%), 인도주차(12%)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는 총 15만7700건(10만명당 1만1112건)으로, 과속운전·신호위반 등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79.7%, 안전모 미착용·인도 주행 등 이륜차 위반신고 7.6% 등이었다.
'생활안전' 신고는 총 6만3677건(10만명당 4487건)이었으며, 도로·시설물파손 64.8%,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소 23.4% 등을 차지했다.
'생활불편' 신고는 총 3만7890건(10만명당 2670건)으로, 불법광고물 41.8%, 쓰레기·폐기

물 15.85% 등으로 집계됐다.
안전신문고 처리 만족도 조사에서도 광주는 4.4점(전국 평균 4.27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가 지난해 안전신문고 접수 민원 중 '조치완료(수용·일부수용)'를 마친 비율은 81.7%로, 전국 평균(80.7%)을 웃돌았다.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불법주정차, 자동차·교통 위반 등 신고비율이 높은 안전신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신문고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서 설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다

건설업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2004년 1월 이후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1만5000명(0.8%)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2003년 '카드 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1월 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3년 1월 31만7000명, 2024년 1월 34만1000명이 증가한 바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3만8000명으로 기타업

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6개월째 이어졌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3만1000명이 증가한 2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27%가량이 외국인이다.
1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8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만6000명(7.9%)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2.3%) 줄었다.
지급액은 9747억원으로, 356억원(3.8%) 늘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지급액이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